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8. 11. 5(수), 8(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요한계시록 21: 1-8

1. 계시록의 배경

1) 저자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써 말년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밧모섬
에 유배 당함

2) 장소

밧모섬. 터키 서 해안에서 30만일 떨어진
로마 시대에 밧모섬은 정치적인 죄수들의 유배지

3) 기록 관점: 성령 안에서!

4) 황제 숭배

요한의 유배는 도미티안 황제(81-96) 때이며, 황제 숭배가 본
격적으로 교회와 갈등을 일으킴. 요한이 이를 반대함

5) 계시록의 인간 이해: 역사적 존재

6) 예술적 언어: 문자적 해석은 요한의 본래 의미와 전혀 무관함

7)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우리가 속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 현실의 부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현실 가운데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8) 성경과 역사

-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역사가 전체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는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민족의 부르심이 아니라
전 세상을 위한 부르심*

- 역사의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를 찾음.

*세상과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

9) 계시록을 읽는 바른 방법:

계시록은 시(Poetry)또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화가와 비슷함
논리적인 전개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상상력과 감정을 사용함

2. 계시록의 구조

1) 서론과 후기

서론 1:1-3 메시지의 원천은 하나님
22: 6-21: 후기. 다시금 서론을 확인

2) 세 부분

- a 1:4-20 부활하신 예수, 들리신 예수를 요한이 바라봄 1: 4-20
- b 2:1-3:22 7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하나되어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메시지. 비록 각 교회들은 잘못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요함
- c 4:1- 22:5 당황스러운 이미지들의 연속. 비전들의 관점은 하늘. 계시록의 중심

3) 미래의 비전(4: 1-22:5): 7비전

*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부분

- 일곱 교회(1:9-3:22)
- 일곱 인(4:1-7:17)
- 일곱 나팔(8:1-14:20)
- 일곱 대접(15:1-22)

4) 열쇠

*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데 핵심: 7이라는 숫자

- 1:4 일곱 영
- 1:11 일곱 교회
- 1:12 일곱 등잔
- 1:16 일곱 별

-7교회에 보내는 각 메시지가 7부분으로 나누어짐
-마지막에는 일곱 비전이 나타나며 이 일곱 비전도 각각이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짐

5) 역사관

요한의 비전은 당대의 삶을 기술하고 있음.

현재와 미래,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갈등은,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갈등

6) 세상에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음. 교회와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염세주의 또는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시대의 징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함(마 16: 2-4).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옛 시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새 시대가 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함.

- 2:1~3:22 까지의 7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핵심: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 교회를 측정하기: 개 교회와 전체 교회는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함
- 자기비판(self-criticism)은 교회의 생명: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선 안됨.

완전:

하나님의 창조, 일주일이 7일, 7년째 땅이 쉬어야함...

계시록에서는 7이란 숫자를 사용함으로 교회의 핏박은 특정한 지역의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일곱 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함

교회의 위험은 세상적인 요소들(바알 2: 14-15, 이세벨 2:20)을 받아들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의 주된 위험은 내적인 것.

교회가 항상 가질 자세는 자기 점검, 자기 비판, 고백.

3. 계시록 해석 원칙 (과거? 현재? 미래?)

계시록의 사건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남.
먼저 교회가 세워짐. 다음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삶의 스타일이 드러남, 갈등이 시작됨. 기독교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임 요청받음. 순교자들이 나타남. 마침내 악이 정복됨. 내가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

1) 일곱 인물

- 인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상징함
- 일곱 인들은 인간 삶과 문명에 있는 악의 세력들 전체. 정복, 전쟁, 기근, 죽음.
- 144000; 12지파는 완전함을 상징
-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의 구원. 요한은 지금 셀수도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음
-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명을 마침. 이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함

2) 일곱 나팔; 8: 6-14:20

-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 나팔은 우리가 일상 생활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궁극적 관심에 초점을 기울이도록 함. 즉, 선과 악의 싸움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며 이에 참여하도록 함

3) 일곱 대접

15: 1- 22: 7

4) 최종 승리

계 19: - 20장

새 하늘과 새 땅